

# 탐라의 대일교섭

- 『日本書紀』의 교류기록을 중심으로

이유진\*

I. 머리말

II. 661년 대일교섭의 시작과 그 배경

III. 한반도정세의 격변과 天智朝와의 교섭

IV. 天武·持統朝와의 교섭과 동아시아 정세

V. 맺음말

## 국문요약

耽羅와 日本의 대외교섭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백제멸망 후인 661년 5월 탐라 왕자 阿波伎 등이 일본에 貢獻하면서 부터이다. 齊明 5년(659) 일본이 당에 파견한 제4차 遣唐使는 入唐하여 당의 황제를 알현하고 견당사의 임무를 수행하였지만 당시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정벌을 준비하던 당이 기밀누출방지를 위해 견당사를 유폐하여 귀국하지 못하다 당이 백제를 정복한 후에야 귀국할 수 있었다. 661년 귀국길에 오른 견당사는 조난을 당하여 탐라에 표착하게 되고, 탐라왕자 阿波伎 등과 함께 일본으로 귀국하였다. 이후 탐라는 백제의 부흥운동에 참전하였으나 패배하였다. 당시 더욱 긴장이 고조되어 가던 당시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탐라는 일본의 天智朝에 수차례에 걸친 사절파견과 조공을 통한 본격적 교섭을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인계의 요구에 응해 취리산 맹약의식에 참여하고, 신라·백제·왜와 함께 태산의 封禪儀式에

\* 숭실대학교 사학과 초빙교수

참여 하는 등 적극적 대외교섭을 통해 동아시아의 정세변화에 대응하였다.

다이카개신을 통해 고대울령국가를 완성한 일본은 天武·持統朝를 거치며 前朝의 친백제정책에서 친신라정책으로 한반도에 대한 대외정책 방침을 전환하고, 이로 인해 고구려멸망, 나당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과 30년에 걸친 관계 단절이라는 정책을 고수하지만 동시에 탐라와는 더 적극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여, 탐라사의 일본과 견과 일본사의 탐라과견을 통한 양국의 교류관계는 지속되었다.

주제어 : 탐라, 일본, 대외교섭, 백제부흥운동, 동아시아 국제관계

## I. 머리말

일찍이 중국 사서인 『三國志』를 통하여 그 존재가 확인되는 탐라<sup>1)</sup>는 『三國史記』에 의하면 百濟 文周王 2년(476) 백제에 方物을 바치고 백제관위 恩率을 받았다<sup>2)</sup>고 한다. 이후 동아시아 각국의 사료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탐라는 한반도의 고대 삼국뿐만 아니라 隋·唐으로 이어지는 중국과 교류하고, 7세기 후반에는 일본과도 교섭하였다. 특히 660년 백제의 멸망을 계기로 중국·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과 정치·외교적 교류를 활발히 하였다. 661년 탐라왕 儒李都羅는 당에 사신을 파견했고,<sup>3)</sup> 일본에도 왕자 阿波伎를 사신으로 보냈다.<sup>4)</sup> 이듬해에는 佐平 徒冬音律을 신라에 보내<sup>5)</sup> 동아시아 각국과의 교류를 본격화 하였다. 그러나 탐라의 대외교류와 관련된 기록은 그

- 1) 탐라는 『三國志』에는 ‘州胡’, ‘島夷’로 기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耽牟羅’, ‘耽牟羅’, ‘毛羅’, ‘托羅’, ‘涉羅’, ‘儋羅’ 등의 명칭으로 여러 사서에 기록되어 있다.
- 2) 『三國史記』 권26 百濟 文周王 2년(476) 4월 조. “耽羅國獻方物, 王喜拜使者爲恩率”; 그러나 『日本書紀』 권17 繼體天皇 2년(508) 12월 조에는 “南海中耽羅人, 初通百濟國”이라 기록되어 있다.
- 3) 『新唐書』 권220 東夷傳 조. “龍朔初, 有儋羅者, 其王儒李都羅遣使入朝, 國居新羅武州南島上, 俗朴 陋, 衣豕皮, 夏居革屋, 冬窟室. 地生五穀, 耕不知用牛, 以鐵齒杷土. 初附百濟, 麟德中, 酋長來朝, 從帝至泰山, 後附新羅.”
- 4) 『日本書紀』 권26 齊明天皇 7년(661) 5월 조. “丁巳, 耽羅始遣王子阿波伎等貢獻 ……”
- 5) 『三國史記』 권6 新羅 文武王 2년(662) 2월 조. “耽羅國主佐平徒冬音律(一作津)來降. 耽羅武德以來, 臣屬百濟, 故以佐平爲官號. 至是降爲屬國.”

수가 적고, 내용 또한 매우 소략하기 때문에 관련 교섭기록의 검토만으로 당시 탐라와 주변국과의 교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고대 탐라와 일본의 교섭과 관련하여서는 일본의 사서에 남아 있는 몇 건의 기록을 제외하고는 全無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탐라와 일본의 교섭을 둘러싼 연구는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모리 키미유키(森公章)는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탐라가 주변국과 정치적 지배-피지배관계를 통한 조공외교를 펼치고 있었다<sup>6)</sup>고 주장하였으며, 가케이 도시오(筧敏生)에 의하면 탐라는 지배층의 권력사체가 취약하여 백제의 질서에 의존하였고, 백제의 보호에 의해서만 결집되던 탐라지배층이 백제가 멸망하자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여 왕권의 안정을 추구하였다<sup>7)</sup>는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물론 이에 반해 고대 탐라는 동아시아의 일원으로 동아시아 각국과 서로 밀접하게 통교하고 문물을 습득하면서 독자적 생존을 모색하고 있었다<sup>8)</sup>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

탐라와 일본의 대외교섭과 관련하여 일본 측에 몇 건의 기록만이 남아 있는 상황 하에서 양국의 대외관계와 교섭양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양국 교섭 기사의 검토뿐만이 아니라, 당시 탐라와 일본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정세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전제 하에 양국의 정치 상황 속에서 대외정책의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日本書紀』에 기록되어 있는 탐라의 대일교섭 관련기록을 검토하고, 당시 탐라와 일본을 둘러싼 당·신라 등 주변 동아시아의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여 탐라의 대일교섭의 실상과 그 의의를 밝혀 보고자 한다.

## II. 661년 대일교섭의 시작과 그 배경

탐라와 일본의 대외교섭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백제멸망 후인 661년 5월 탐라왕자 阿波伎 등이 일본에 貢獻하면서부터이다. 『日本書紀』 권26 齊

6) 森公章, 「古代耽羅の歴史と日本」, 『朝鮮學報』 118, 1981; 同, 「古代耽羅と日本の交流」, 『月刊韓國文化』 18-6, 1996.

7) 筧敏生, 「耽羅王權と日本」, 『續日本紀研究』 262, 1989.

8) 진영일, 「고대 탐라국의 대외관계」, 『탐라문화』 30호, 2007.

明天皇 7년(661) 5월 丁巳 조와 그 分註에 인용된 「伊吉連博德書」에 阿波伎가 일본으로 가게 된 경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丁巳 耽羅가 처음으로 왕자 阿波伎 등을 보내 貢物을 바쳤다. 이키노무라지 하카도코(伊吉博得)의 책에 말하기를 “신유년(661) 정월 25일에 돌아와 越州에 도착하였다. 4월 1일에 越州로부터 上路로 동쪽으로 돌아왔다. 7일에 행렬이 檀岸山 남쪽에 도착하였다. 8일 닭이 울 무렵(새벽)에 서남풍을 타고 배는 大海로 나왔다. 바다에서 길을 잃고 표류하여 큰 고통을 겪었다. 8박9일 만에 겨우 耽羅嶋에 도착했을 때 바로 섬사람 왕자 阿波伎 등 9인이 불러 위로하고, 함께 客船(일본의 遣唐使船)을 타고 帝朝에 바치려 하였다. 5월 23일에 朝倉의 조정에 奉進하니, 耽羅가 조정에 들어온 것이 이때에 시작되었다. 또 智興의 僊人 야마토노 아야노 카야노 아타히타리시마(東漢草直足嶋)의 참소를 당해 사신 등이 寵命을 받지 못하였다. 사신 등이 원망하여 하늘의 신에게 아뢰니, 足嶋은 벼락을 맞아 죽었다. 당시 사람들이 칭하여 말하기를 ‘大倭 天神의 앙갚음인가’라고 하였다”고 하였다.”<sup>9)</sup>

라고 하여, 齊明 5년(659) 일본이 파견한 遣唐使가 661년의 귀국길에 탐라에 표착하였으나 탐라왕자의 도움을 받아 함께 일본으로 가게 된 사정을 설명하고 있다.

귀국길에 탐라에 표착하여 탐라왕자와 함께 일본으로 돌아온 건당사는 일본이 당에 파견한 제4차 건당사이다. 齊明 5년(659)에 임명된 제4차 건당사는 대사 사카히베노무라지 이하시키(坂合部連石布)와 부사 츠모리노무라지 키사(津守連吉祥)를 필두로 하여 2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나니와(難波)를 출발하였다.<sup>10)</sup> 이 제4차 건당사의 파견은 전 해인 齊明 4년(658) 일본에서 아베노 히라후(阿倍比羅夫)의 북방원정결과 포로로 잡아 온<sup>11)</sup> 미찌노쿠(道奧)의

9) 『日本書紀』 권26 齊明天皇 7년(661) 5월 조. “丁巳, 耽羅始遣王子阿波伎等貢獻. 伊吉連博得書云, 辛酉年正月廿五日, 還到越州. 四月一日, 從越州上路, 東歸. 七日, 行到檀岸山明. 以八日鷄鳴之時, 順西南風, 放船大海. 海中迷途, 漂蕩辛苦. 九日八夜, 僅到耽羅之嶋. 便即招慰嶋人王子阿波伎等九人, 同載客船, 擬獻帝朝. 五月廿三日, 奉進朝倉之朝. 耽羅入朝, 始於此時. 又, 爲智興僊人東漢草直足嶋, 所讒, 使人等不蒙寵命. 使人等怨, 徹于上天之神, 震死足嶋. 時人稱曰, 大倭天報之近.”

10) 『日本書紀』 권26 齊明天皇 5년(659) 7월 戊寅 조. 「伊吉連博德書」에 제4차 건당사의 파견에서 귀국까지의 정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11) 『日本書紀』 권26 齊明天皇 4년(658) 3월 조. “……, 是月, 遣阿倍臣, 率船師一百八十艘, 討蝦夷國. ……”

에미시(蝦夷) 남녀 2인을 당의 천자에게 보이고자 파견한 것이다.<sup>12)</sup>

견당사일행은 8월 11일 츠쿠시(筑紫)의 오즈우라(大津浦)를 통해 大海로 나아갔고, 9월 13일에는 백제 남쪽 섬에 이르렀다. 14일 2척의 배는 다시 대해로 나아갔으나, 15일 배가 역풍을 만나 남쪽 섬(위치나 이름 미상)에 표착하였고 견당사절은 그 섬사람들에게 대부분 살해되었다. 5인 만이 살아남아 1척의 배로 간신히 당에 이르렀다. 윤10월 15일 역마를 타고 長安으로 入京하였으나 당시 高宗이 東都인 洛陽으로 옮겨 있었기 때문에 다시 낙양으로 가서 30일에 고종을 알현하였다. 11월 1일에 배풀어진 冬至會에서 다시 고종을 알현하였으나 12월 3일 勅旨를 받고 장안에 유폐되었다.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는 『일본서기』 권26 齊明天皇 5년(693) 7월 戊寅 조에

12월 3일 韓智興의 僮人 카후치노 아야노 오마로(西漢大麻呂)가 우리 客(견당사)을 참언하였다. 객 등은 唐朝의 죄를 얻어 流刑에 처해지게 되었다. 전에 智興을 3천리 밖으로 유형에 처하였다. 객중의 이키노무라지 하카도코(伊吉博得)가 上奏하여 인하여 죄를 면하였다. 일이 끝난 후 勅을 내려 “국가는 내년에 반드시 海東을 정벌할 것이다. 너희들 倭客도 東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고 마침내 西京에 가두어 別處에 유폐하였다. 문을 닫고 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곤욕스럽고 고통스럽게 해를 보내었다.<sup>13)</sup>

라고 하여, 당시 백제원정을 준비하고 있던 당이 견당사를 귀국시키지 않고 장안의 別處에 유폐시켰던 사실을 전하고 있다. 아마도 당은 기밀유지를 위해 견당사를 귀국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신라와 연합한 당은 이듬 해(660) 7월 백제를 멸망시켰고, 견당사일행은 9월이 되어서야 귀국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11월 1일에 洛陽에서 백제의 義慈王, 태자 隆 이하의 왕족·귀족들이 포로로 잡혀 온 것을 본 이후, 11월 24일 낙양을 출발하여 이듬 해(661) 정월 25일 越州에 도착하였고, 4월 1일 월주를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 제4차 견당사는 귀국길에 다시 표류하여 탐라에 이르게 되었

12) 森公章, 『遣唐使の光芒』, 角川選書 468, 2010, p71.

13) 『日本書紀』 권26 齊明天皇 5년(659) 7월 戊寅(3일) 조. “…… 十二月三日, 韓智興僮人西漢大麻呂, 枉讒我客. 客等獲罪唐朝, 已決流罪. 前流智興於三千里之外. 客中有伊吉連博德奏, 因即免罪. 事了之後, 勅旨, 國家, 來年, 必有海東之政. 汝等倭客, 不得東歸. 遂匿西京, 幽置別處. 閉戶防禁, 不許東西. 困苦經年.”

고, 그곳에서 탐라왕자와 함께 일본으로 가게 되면서 탐라와 일본의 첫 교섭이 시작된 것이다.

탐라에 표류한 일본의 건당사일행은 자신들이 당에서 보고 들은 대륙 및 한반도의 정세를 자세히 설명하였을 것이고, 백제멸망 이후 위기의식을 느껴 새로운 외교방안을 모색하고 있던 탐라는 백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일본사신의 탐라표착을 계기로 왕자일행의 일본과견을 결정하였을 것이다.<sup>14)</sup> 백제멸망 후 백제부흥운동이 활발하던 661~662년 사이에 탐라는 일본뿐만 아니라 신라와 당에도 사신을 파견하여<sup>15)</sup> 국제정세의 파악과 새로운 외교관계의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일본의 건당사와 함께 일본에 갔던 탐라 왕자 阿波伎의 일본 내에서의 행적이나 그가 언제 귀국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므로 그 사정을 자세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제4차 건당사가 탐라 왕자 阿波伎와 함께 일본에 도착하였을 때 齊明天皇은 츠쿠시(筑紫)에서 백제구원을 위한 출병을 준비하고 있었다. 阿波伎의 일본 파견을 계기로 탐라는 백제부흥운동에도 참여하였던 것 같다. 백촌강전투 후 백제의 扶餘忠勝·忠志와 함께 耽羅國使가 당의 劉仁軌에게 항복하는 기록이 보이기 때문이다. 『舊唐書』 권84 劉仁軌傳에, “…… 僞王子 扶餘忠勝·忠志 등 士女 및 倭衆과 아울러 耽羅國使를 거느리고, 一時에 아울러 항복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보는 한<sup>16)</sup> 탐라가 직접적으로 백제부흥군에 원군을 파견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는 없지만, 倭衆과 아

14) 森公章, 『古代耽羅の歴史と日本』, 『朝鮮學報』 108, 1986.

15) 『新唐書』 권220 東夷傳 倭 條 “龍朔初, 有僞羅者, 其王儒李都羅遣使入朝, 國居新羅武州南島上, 俗朴陋, 衣大豕皮, 夏居革屋, 冬窟室. 地生五穀, 耕不知用牛, 以鐵齒耒土. 初附百濟, 麟德中, 酋長來朝, 從帝至泰山, 後附新羅”; 『唐會要』 권100 耽羅國 條 “耽羅在新羅武州海上. 居山島上, 周廻竝接於海. 北去百濟, 可五日行. 其王姓儒李名都羅. 無城隍, 分作五部落. 其屋宇爲圓牆, 以草蓋之. 戶口八千, 有弓刀楯稍, 無文記. 唯事鬼神. 常役屬百濟. 龍朔元年八月, 朝貢使至”; 『冊府元龜』 권970 外臣部 朝貢3 條 “龍朔元年(661)八月, 多羅國王摩如失利多福國王難修強自說耽羅國王儒李都羅, 竝遣來朝, 各貢方物. 三國皆林邑之南邊, 海小國也”; 『三國史記』 권6 新羅 文武王 2년 (662) 2월 條 “耽羅國主佐平徒冬音律(一作津)來降. 耽羅武德以來, 臣屬百濟, 故以佐平爲官號. 至是降爲屬國.”

16) 『舊唐書』 권84 劉仁軌傳. “…… 仁軌遇倭兵於白江之口, 四戰捷, 焚其舟四百艘, 煙焰漲天, 海水皆赤, 賊衆大潰. 餘豐脫身而走, 獲其寶劍. 僞王子扶餘忠勝忠志等率士女及倭衆并耽羅國使, 一時並降.”

올러 耽羅國使를 거느리고, 一時에 아울러 항복하였다고 한 것을 보면 백제 부흥군편에 가담하였던 탐라가 백제부흥군의 패전으로 함께 나당연합군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한반도 정세의 격변과 天智朝와의 교섭

661년 탐라가 처음으로 왕자 阿波伎 등을 보내 일본과 교섭을 시작한 이후 天智朝에 이르러서도 탐라와 일본의 교섭은 계속되었다. 『日本書紀』 권 27에 기록되어 있는 양국의 교섭기사는 다음과 같다.

- ① 天智天皇 4년(665) 가을 8월 조  
 達率 타후혼순소(答怱春初)를 보내 나가토노쿠니(長門國)에 성을 쌓게 했다. 達率 오쿠라이후쿠루(憶禮福留), 達率 시히후쿠부(四比福夫)를 츠쿠시노쿠니(筑紫國)에 보내 오노(大野)와 기(椽)의 2城을 쌓게 하였다. 耽羅가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sup>17)</sup>
- ② 同 5년(666) 봄 정월 조  
 戊寅 高麗(고구려)가 前部能婁 등을 보내 調를 바쳤다. 이 날 耽羅가 왕자 姑如 등을 보내 貢物을 바쳤다.<sup>18)</sup>
- ③-1 同 6년(667) 가을 7월 조  
 己巳 耽羅가 佐平 椽磨 등을 보내 공물을 바쳤다.<sup>19)</sup>
- ③-2 同 6년(667) 윤11월 조  
 丁酉 錦 14필, 纈 19필, 緋 24필, 紺布 24端, 桃染布 58端, 斧 26, 鈿 64, 칼 62개를 椽磨 등에게 주었다.<sup>20)</sup>
- ④-1 同 8년(669) 3월 조  
 己丑 耽羅가 왕자 久麻伎 등을 보내 공물을 바쳤다.<sup>21)</sup>

17) 『日本書紀』 권27 天智天皇 4년(665) 秋8월 조. “遣達率答怱春初, 築城於長門國. 遣達率憶禮福留·達率四比福夫於筑紫國, 築大野及椽二城. 耽羅遣使來朝.”

18) 『日本書紀』 권27 天智天皇 5년(666) 春정월 조. “戊寅, 高麗遣前部能婁等進調. 是日, 耽羅遣王子姑如等貢獻.”

19) 『日本書紀』 권27 天智天皇 6년(667) 秋7월 조. “己巳, 耽羅遣佐平椽磨等貢獻.”

20) 『日本書紀』 권27 天智天皇 6년(667) 閏11월 조. “丁酉, 以錦十四匹·纈十九匹·緋廿四匹·紺布廿四端·桃染布五十八端·斧廿六·鈿六十四·刀子六十二枚, 賜椽磨等.”

21) 『日本書紀』 권27 天智天皇 8년(669) 3월 조. “己丑, 耽羅遣王子久麻伎等貢獻.”

## ④-2 同 8년(669) 봄 3월 조

丙申 耽羅의 왕에게 5곡의 종자를 주었다. 이 날 왕자 久麻伎 등이 사행을 마치고 돌아갔다.<sup>22)</sup>

라고 하여, 탐라와 天智朝의 교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의 교섭기사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 시기의 동아시아 정세 및 일본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시기는 백촌강전투 이후 동아시아 각국이 외교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시기였다.

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하였지만 백제부흥운동은 계속되었고, 皇極 4년(645)이래 다이카개신(大化改新)을 추진하고 있던<sup>23)</sup> 일본에도 백제로부터 구원요청이 이르렀다. 당시 일본은 齊明天皇 死後(661) 나카노오에 황자(中大兄皇子)가 황태자로서 즉위식을 치르지 않고 稱制的 형태로 정치를 주도하며<sup>24)</sup> 백제부흥운동을 지원하였다. 마침내 天智 2년(663) 9월 27,000명의 백제부흥군을 파병한 일본은 백제군과 연합하여 백제부흥운동을 추진하였으나 白村江에서 나당연합군에게 패하여 한반도에서 철군하였다.<sup>25)</sup>

백촌강전투 이후 패전국 백제와 일본에 대한 당의 조치는 앞으로 있을 대고구려전을 위한 국제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졌다.<sup>26)</sup> 당은 대고구려전 준비를 위한 후방기지로서 구백제령에 鎮守使(일본 기록에는 百濟鎮將이라 함)를 설치하여 기미지배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도 하에 劉仁軌를 주둔시켰다. 백촌강전투 이후 유인케는 민심을 수습하고 戰地의 회복에 힘써 그 공로를 인정받아 帶方州刺史에 임명되었다. 고종은 또한 유인케의 건의를 받아들여 義慈王의 태자 扶餘隆을 熊津都督으로 임명하였다.<sup>27)</sup> 부여융은 백

22) 『日本書紀』 권27 天智天皇 8년(669) 3월 조. “丙申, 賜耽羅王五穀種. 是日, 王子久麻伎等罷歸.”

23) 『日本書紀』 권24 皇極天皇 4년(645) 6월 조.

24) 『日本書紀』 권27 齊明天皇 7년(661) 7월 조. “丁巳崩. 皇太子素服稱制.” 다이카개신의 주역으로 이후 실질적 정권담당자였던 나카노오에황자(中大兄皇子)는 668년 오미(近江)에서 천황으로 즉위하였다. 『日本書紀』 권27 天智天皇 7년(668) 春정월 조. “戊子, 皇太子即天皇位.”

25) 『日本書紀』 권27 天智天皇 2년(663) 秋8월 조.

26) 池内宏, 『百濟滅亡後の動亂及び唐羅日三國の關係』, 『滿鮮史研究』上 第2册, 吉川弘文館, 1960.

27) 『新唐書』 권108 劉仁軌傳.

제멸망 후 당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백촌강전투 때에 당군으로 참여하였다. 백촌강전투를 계기로 당은 부여융과 더불어 백제멸망 후 당으로 잡혀갔던 상당수의 백제인들을 귀국시켜 민심을 수습하였다. 그리고 664년 2월 당의 칙사 劉仁願의 주도 하에 웅진도독 부여융과 신라의 金仁問 사이에 맹약이 이루어졌다.<sup>28)</sup> 백제멸망 후인 663년 4월 문무왕을 鷄林州大都督으로 임명하였던 당은 백제지역에 대한 기미주지배를 확고하기 위하여 이러한 맹약을 주선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패전국인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이 백제유민과 함께 고구려를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백촌강전투 이후 당의 ‘백제진장’(혹은 百濟國大唐行軍總管) 劉仁願은 664년 4월 사신 郭務棕 등 30인과 ‘百濟佐平’ 禰軍 등 100여명을 일본에 파견하였다.<sup>29)</sup> 여기에서 곽무중 등을 일본에 파견한 백제진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정효운은 『資治通鑑』 권201 高宗 麟德元年(664) 겨울 10월 庚辰 조에 “유인케가 군사들이 많이 지쳐있으므로 군사들의 사기를 높여달라고 上言하자 고종이 이를 받아들여 유인원을 파견하여 군대를 교체하였다”는 기록을 들어 이때의 백제진장은 유인케이고 『日本書紀』의 기록은 잘못이라고 하였다.<sup>30)</sup> 그러나 『三國史記』 권6 문무왕 3년(663) 5월 조에 ‘留鎮郎將 劉仁願’과 ‘檢校帶方州刺史 劉仁軌’의 이름이 보이고 “인케는 인원과 군사를 합하여 무장을 풀고 군사를 휴식시키면서 군사의 증원을 청하니……”<sup>31)</sup>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유인원은 664년 이전에 웅진에 들어와 있었으므로 『日本書紀』의 기록을 들어 유인원이 곽무중 등을 일본에 파견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곽무중이 쓰시마(對馬)에 도착하자 天智朝에서는 우네메(采女) 츠우신(通信)과 僧 치벤(智弁)을 파견하여 유인원이 보낸 牒을 받아왔다. 9월에 天智朝

28) 『三國史記』 권6 新羅 文武王 4년(664) 2월 조. “角干金仁問伊滄天存與唐勅使劉仁願 百濟扶餘隆, 同盟于熊津.”

29) 『日本書紀』 권27 天智天皇 3년 夏5월 甲子 조. “百濟鎮將劉仁願, 遣朝散大夫郭武棕等, 進表函與獻物.”

30) 정효운, 「天智朝의 대외정책에 대한 일고찰」, 『한국상고사학보』 14, 1993.

31) 『三國史記』 권6 文무왕 3년(663) 5월 조. “…… 百濟故將福信及浮圖道琛, 迎故王子扶餘豐立之, 圍留鎮郎將劉仁願於熊津城. 唐皇帝詔, 仁軌檢校帶方州刺史統前都督王文度之衆與我兵, 向百濟營轉鬪陷 …… 仁軌與仁願合, 解甲休士乃請益兵 ……”

는 츠모리노무라지 키미(津守連吉祥) 등을 파견하여 그 諫에 대한 勅旨를 전하였다. 츠쿠시다사이(筑紫大宰)의 명의로 된 勅의 내용은 광무종이 당의 천자가 보낸 정식사절이 아니고, 國書도 당의 천자가 보낸 것이 아니므로 조정에 보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칙지는 12월에 광무종에게 전달되었고, 앞으로는 ‘公使’가 아니면 入京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하였다. 백촌강전투의 패배 이후 나당연합군의 일본침공이라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에서 전쟁당사자인 당의 사절에 대한 일본 측의 경계는 당연한 것이었다. 이에 天智朝는 唐使의 입경거절 방침을 정한 것이다. 동맹관계에 있던 백제가 멸망하고, 또 하나의 동맹국인 고구려가 당의 침공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일본이 당과 우호관계를 맺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광무종은 10월 초 勅과 선물을 받고 饗應을 받은 후 12월 한반도로 돌아갔다.<sup>32)</sup>

백촌강전투 이후 天智朝는 호족들의 氏上을 정하고, 호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民部·家部 등의 사유민을 파악하는 등, 패전 후 지배체제의 강화를 위한 개혁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한편으로는 망명백제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여 664년 3월 백제 의자왕의 아들 善光(扶餘勇)을 나니와(難波)에 살게 하고,<sup>33)</sup> 아울러 백제망명인들의 거주지도 마련해 주었다.

664년 이후 天智朝는 방어체제의 정비에 힘써 쓰시마(對馬), 이키(壹岐), 츠쿠시(筑紫) 등에 사키모리(防人)와 봉화대를 설치하고, 츠쿠시다사이후(筑紫大宰府)의 방비를 위해 미즈키(水城)를 축조하였다.<sup>34)</sup>

광무종의 귀국 후, 일본은 망명한 백제지배층을 흡수하여 지배체제의 재

32) 『善隣國寶記』所引「海外國記」, “海外國記曰, 天智天皇三年四月, 大唐客來朝, 大使朝散大夫上柱國郭務棕等卅人, 百濟佐平禰軍等百餘人, 到對馬島, 遣大山中采女通信侶僧智辨等來, 喚客於別館, 於是智辨問曰, 有表書并獻物, 以不, 使人答曰, 有將軍牒書一函并獻物, 乃授牒書一函於智辨等而奉上, 但獻物檢看而不將也. 九月, 大山中津守連吉祥大乙中伊岐史博德僧智辨等, 稱筑紫大宰辭, 實是勅旨, 告客等, 今見客等來狀者, 非是天子使人, 百濟鎮將私使, 亦復所賁文牒, 送上執事私辭. 是以使人不得入國, 書亦不上朝廷, 故客等自事者, 略以言辭奏上耳. 十二月, 博德授客等牒書一函, 函上著鎮西將軍, 日本鎮西筑紫大將軍, 牒在百濟國大唐行軍總管, 使人朝散大夫郭務棕等至, 披覽來牒, 尋省意趣, 既非天子使, 又無天子書, 唯是總管使, 乃爲執事牒, 牒是私意. 唯湏口奏, 人非公使, 不令入京, 云云.”

33) 『日本書紀』天智天皇 3년(664) 3월 조. “以百濟王善光王等, 居于難波.”

34) 『日本書紀』天智天皇 3년(664) 是歲 조. “於對馬鳴壹岐鳴筑紫國等, 置防與烽. 又於筑紫, 築大堤貯水, 名曰水城.”

건을 도모하였으며, 665년 2월 福信의 공적을 감안하여 그의 아들 鬼室集斯에게 관위 小錦下를 주어 일본의 관위질서 안에 편입시켰다. 또한 백제유민 400여명을 오미노쿠니(近江國)의 간자키군(神前郡)에 정착시켰다.<sup>35)</sup>

이러한 天智朝의 정책을 통해 보면, 여전히 일본은 친백제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당과의 관계는 여전히 경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天智 4년(665) 9월 다시 당의 고종은 劉德高를 비롯하여 총 254인을 일본에 파견하며 서신을 전하였다. 이때 曷武忠과 백제의 예군 등이 다시 사절에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카토미노무라지 카마타리(中臣連鎌足)의 아들 杵原(定惠)도 함께 귀국하게 하였다.<sup>36)</sup> 杵原(定惠)는 654년의 견당사와 함께 입당한 후 11년 만에 귀국한 것이다. 이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바란 당이 天智天皇의 측근인 나카토미노무라지 카마타리(中臣連鎌足)의 아들을 귀국시켜 양국관계 개선을 도모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일본은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여 유덕고 등이 쓰시마(對馬)에 도착한 직후에도 백제망명자를 통한 방어태세 강화에 주력하였다. 위에 든 사료 ①에 보이는 바와 같이 天智 4년(665) 8월 達率 타후혼 소(答怱春初)를 나가토노쿠니(長門國)에 보내고, 達率 오쿠라이 후쿠루(憶禮福留)와 시히 후쿠부(四比福夫)를 츠구시노쿠니(筑紫國)에 보내 오노키(大野城)와 기키(椽城)를 쌓게 하였다. 이들은 663년 9월 일본 수군이 패퇴하여 돌아갈 때 함께 일본으로 간 백제인들이다.<sup>37)</sup> 오노키(大野城)와 기키(椽城)는 다자이후(大宰府)의 방비를 위해 건립한 것으로 산성의 성벽, 성문, 성내 건물군 등의 구조와 형식이 백제산성과 유사한 조선식산성이다.<sup>38)</sup> 뿐만 아니라 664년부터 670년까지 쓰시마(對馬)에서 야마토노쿠니(大和國)에 걸쳐 조선식산성이 축조되었는데,<sup>39)</sup> 이는 天智朝가 나당연합군의 침공에 대비한 방어태세의 강화에 망명해 온 백제인들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5) 『日本書紀』 天智天皇 4년(665) 春2월 是月 丙子 倭國百濟國官位階級 仍以佐平福信之功, 授鬼室集斯小錦下. 復以百濟百姓男女四百餘人, 居于近江國神前郡.”

36) 『日本書紀』 白雉天皇 5년(654) 2월 丙子 分注. “遣大唐押使大錦上高向史玄理, …… , 定惠, 以乙丑年, 付劉德高等船歸.”

37) 『日本書紀』 天智天皇 2년(663) 9월 甲戌 倭國船師, 及佐平余自信·達率木素貴子·谷那首·憶禮福留, 并國民等, 至於椽禮城. 明日, 發船始向日本.”

38) 西谷正, 『朝鮮式山城』, 『岩波講座 日本通史』 3, 岩波書店, 1994.

39) 井上秀雄, 『古代東アジアの文化交流』, 溪水社, 1993, p.484.

이러한 상황 하에서 天智 4년(665) 8월 탐라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후 거의 매년 탐라와 天智朝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빈번한 탐라와 일본의 교류는 결국 백촌강전투 이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당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가는 동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각 지역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우호와 협력체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탐라도 일본과의 빈번한 교섭을 통해 동아시아의 정세변화에 대응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탐라의 天地朝와의 교섭에 대해 김은숙은 “탐라사신이 일본으로 향한 항로가 한반도 남부 연안을 거쳐 츠쿠시(筑紫)로 가는 루트였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이 시기 탐라의 대일교섭에는 ‘백제진장’이나 신라가 관여하고 있었을 것이며, 제3국인 탐라사신이 당의 한반도 남부지배를 일본에 설명하여 당과 일본의 관계개선에 일조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sup>40</sup>고 추측하고 있지만, 탐라와 天地朝의 교섭 기사를 살펴보는 한 탐라가 당이나 신라의 영향(혹은 요청)을 받아 일본에 사절을 보냈다기보다는 탐라 독자의 의지로 대일교섭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①~④까지의 사료를 통해 보면 탐라의 王, 王子, 佐平(사료③-1)이 사절로 파견되고 일본 역시 ‘탐라’라는 독자국과의 교섭으로 인식하여 답례품을 보내는 등(사료③-2, ④-2) 『日本書紀』의 교섭기사나 당시 당이나 신라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살펴보다도 탐라의 대일교섭에 당이나 신라의 의도가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백제멸망 이후에도 여전히 친백제 정책을 고수하고 있던 天地朝와 당과의 관계는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고, 나당연합군의 침공에 대비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하의 일본에 665년 탐라가 사신을 보낸 이후 거의 해마다 탐라와 天地朝의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협력체계를 통해 동아시아 정세변화에 대응하고자 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탐라는 就利山の 서맹의식과 고종의 泰山 封禪儀式<sup>41</sup>)에도 참여한다.

40) 김은숙, 「백제부흥운동이후 天智朝의 국제관계」, 『일본학』 15, 1996, pp.146~159.

41) 『三國史記』 권6 新羅 文武王 5년(665) 秋8월 조. “王與勅使劉仁願熊津都督扶餘融, 盟于雄津就利山. …… 於是, 仁軌領我使者及百濟耽羅倭人四國使, 浮海西還, 以會祠泰山”; 『舊唐書』 권84 劉仁軌傳. “麟德二年(665), 封泰山, 仁軌領率新羅及百濟耽羅倭四國酋長赴會, 高宗甚悅, 擢拜大司憲”; 『新唐書』 권108 劉仁軌傳. “…… 及封泰

유인케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봉선의식에 동아시아 각국의 수장들이 참여하였고 탐라 역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신라·백제·탐라·왜(일본)가 모두 참여하고 있는 이 봉선의식을 통해, 그동안 비록 한반도의 고대3국에 비해 소국으로 인식되고 있던 탐라가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상황에 맞추어 주변국과의 교류를 활발히 해 나간 결과 그 위상을 많이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태산의 봉선의식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탐라는 당에 의해서도 한반도의 고대3국과 마찬가지로 국가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資治通鑑』에 의하면 이 때 고구려도 태자 福南을 보냈다고 한다.<sup>42)</sup> 그렇다면 이때의 봉선의식은 비록 유인케에 의해 주도되었다고는 하지만 당을 둘러싼 동아시아 주변세력이 전부 참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동아시아 각국의 긴밀한 외교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라 할 것이다.

물론 이때 봉선의식에 참여한 일본 사절에 대하여 이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小錦 모리노키미 오이하(守君大石), 小山 사카히베노무라지 이하즈미(板合部連石積), 大乙 기시노키미(吉士岐彌)·기시노 하리마(吉士針間) 등을 665년 12월 당사 유덕고가 귀국할 때 송사로 파견하였을 것으로 추측하는 견해이다.<sup>43)</sup> 모리노키미 오이하(守君大石)는 661년 백제부흥군으로 파병되었고, 사카히베노무라지 이하즈미(板合部連石積)은 653년에 건당유학생으로 제2차 건당사와 함께 당으로 건너간 인물이다. 이들은 모두 본국으로의 귀국기록이 확실치 않으므로, 모리노키미 오이하는 백촌강전투 이후 당의 포로가 되어 웅진도독부에 억류되어 있다가 유인케와 함께 당으로 가서 봉선의식에 참여하였고, 사카히베노무라지 이하즈미는 당에 있다가 고종을 따라 참여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들은 봉선의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본이 직접 파견한 사절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sup>44)</sup>

山, 仁軌乃率新羅百濟僭羅倭四國酋長赴會. 天子大悅, 擢爲大司憲.”

42) 『資治通鑑』 권201, 고종 麟德 2년(665) 7월 조. “上命熊津都尉扶餘隆與新羅王法敏釋去舊黨, 八月, 壬子, 同盟于熊津城. 劉仁軌以新羅·百濟·耽羅·倭國使者浮海西還, 會祠泰山, 高麗亦遣太子福男來侍祠”. 同 10월 조. “上發東都, 從駕文武儀仗, 數百里不絕. 列營置幕, 彌亘原野. 東自高麗, 西至波斯·烏長諸國朝會者, 各帥其屬扈從, 穹廬毳幕, 牛羊駝馬, 填咽道路. 時比歲豐稔”. 同 11월 조. “上至濮陽.”

43) 『日本書紀』 권27 天智天皇 4년 是歲 조. “遣小錦守君大石等於大唐, 云云. 等謂小山板合部連石積大乙吉士岐彌吉士針間. 蓋送唐使人乎.”

사정이 어찌되었든 이때 봉선의식에 참여하고 있는 동아시아 각국은 이러한 국제정세의 움직임 속에서 서로 긴밀한 교섭과 대응을 통해 대외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었다.

사료①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탐라는 신라에서의 서맹의식, 당에서의 봉선에 참여했던 거의 동시기에 바로 일본에도 사절을 파견하여 교섭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 해마다 대일교섭(사료②, ③)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탐라는 독자적으로 주변국에 적극적인 대외교류를 추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정세가 불안한 상황 하에서 일본이 다이카개신(大化改新)을 통해 율령국가를 완성시켜 가는데 한반도 및 당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탐라를 통한 교류 역시 그 중요성을 높여 가고 있었을 것이다.

天智 6년(667) 3월 일본은 도읍을 오미(近江)로 옮겼다.<sup>45)</sup> 물론 천도에 반대하는 의견도 대두되었지만, 天智天皇은 천도를 단행하고 일본 최초의 율령인 오미령(近江令)을 제정하였다.

③-1, ③-2, ④-2의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667년에 耽羅가 보낸 佐平椽磨에게 일본에서 비단 등의 물품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시기에 이르러 일본은 오미령의 완성을 통해 주변국과의 교류에 있어 외국사절에 대한 의례와 예우를 규정해 놓고 그러한 규정을 탐라사에게도 적용하여, 백제 멸망 이후 변화하는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에 발맞춰 탐라와 긴밀한 교류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 IV. 天武·持統朝와의 교섭과 동아시아 정세

天智朝와 활발한 교섭을 벌인 탐라는 이어지는 天武朝와도 계속하여 교섭 관계를 유지하였다. 『日本書紀』 권29에 보이는 탐라와 天武朝의 교섭기사는 다음과 같다.

44) 松田好弘, 『天智朝の外交について』, 『立命館文學』 415·416·417, 1980.

45) 『日本書紀』 권27 天智天皇 6년(666) 3월 조 “己卯, 遷都于近江.”

⑤-1 天武天皇 2년(674) 윤6월 조

壬辰 耽羅가 왕자 久麻藝·都羅·宇麻 등을 보내 조공하였다.<sup>46)</sup>

⑤-2 同 8월 조

戊申 등극을 축하하는 (新羅)사신 金承元 등 中客 이상 27인을 京으로 불렀다. 그리고 다자이(大宰)에 명하여 耽羅의 사신에게 詔를 내려 말하기를 “天皇이 새로이 천하를 평정하고 처음 즉위하였다. 이에 축하하는 사신 이외에는 부르지 않았다. 곧 너희들이 친히 본 바이다. 또 날씨가 춥고 물결이 험해지니 오래도록 머물러 있으면 도리어 너희들의 근심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빨리 돌아가라”고 하였다. 그리고 본국에 있는 국왕과 사신 久麻藝<sup>47)</sup> 등에게 처음으로 爵位를 주었다. 그 爵은 大乙上이었고 또 錦繡로 장식하였는데, 그 나라의 佐平의 관위에 해당한다. 곧 츠쿠시(筑紫)에서 귀국하였다.<sup>48)</sup>

⑥-1 同 4년(676) 8월 조

壬申 초하루 耽羅에서 調를 바치러 온 사신 왕자 久麻伎가 츠쿠시(筑紫)에 이르렀다.<sup>49)</sup>

⑥-2 同 9월 조

戊辰 耽羅王 姑如가 나니와(難波)에 이르렀다.<sup>50)</sup>

⑥-3 同 5년(677) 2월 조

癸巳 耽羅의 사신에게 배 1척을 주었다.<sup>51)</sup>

⑥-4 同 7월 조

甲戌 耽羅의 사신이 돌아갔다.<sup>52)</sup>

⑦ 同 6년(678) 8월 조

戊午 耽羅가 왕자 都羅를 보내 조공하였다.<sup>53)</sup>

46) 『日本書紀』 권29 天武天皇 2년(674) 閏6월 조. “壬辰, 耽羅遣王子久麻藝·都羅·宇麻等朝貢.”

47) 『日本書紀』 권29 天武天皇 4년(676) 8월 조에는 ‘耽羅調使 王子 久麻伎’라고 보인다. 久麻藝와 久麻伎를 동일인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藤井茂利, 『日本書紀に見える耽羅王子名·久麻伎·久麻藝の二重表記の問題をめぐって』, 『國語國文薩摩學』 25, 1980 참조.

48) 『日本書紀』 권29 天武天皇 2년(674) 秋8월 조. “戊申, 喚賀騰樞使金承元等, 中客以上廿七人於京. 因命大宰, 詔耽羅使人曰, 天皇新平天下, 初之即位. 由是, 唯除賀使, 以外不召. 則汝等親所見. 亦時寒浪險. 久淹留之, 還爲汝愁. 故宜疾歸. 仍在國王及使者久麻藝等, 肇賜爵位. 其爵者大乙上. 更以錦繡潤飾之. 當其國之佐平位. 則自筑紫返之.”

49) 『日本書紀』 권29 天武天皇 4년(676) 8월 조. “壬申朔, 耽羅調使王子久麻伎泊筑紫.”

50) 『日本書紀』 권29 天武天皇 4년(676) 9월 조. “戊辰, 耽羅王姑如到難波.”

51) 『日本書紀』 권29 天武天皇 5년(677) 2월 조. “癸巳, 耽羅客賜船一艘.”

52) 『日本書紀』 권29 天武天皇 5년(677) 秋7월 조. “甲戌, 耽羅客歸國.”

## ⑧ 同 7년(679) 봄 정월 조

己卯 耽羅人이 京으로 향했다.<sup>54)</sup>

## ⑨ 同 8년(680) 9월 조

庚子 高麗에 보냈던 사신<sup>55)</sup>과 耽羅에 보냈던 사신들이 돌아와 함께 조정에 인사하였다.<sup>56)</sup>

## ⑩-1 同 13년(685) 겨울 10월 조

辛巳 …… 이 날 아가타이누카히노무라지 다스키(縣犬養連手織)를 大使로 삼고, 가와라노무라지 카네(川原連加尼)를 小使로 삼아 耽羅에 보냈다.<sup>57)</sup>

## ⑩-2 同 14년(686) 8월 조

癸巳 耽羅에 보낸 사신들이 돌아왔다.<sup>58)</sup>

라고 하여 탐라와 天武朝는 이전의 天智朝보다 더 활발히 교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日本書紀』에 기록된 탐라와 일본의 교섭기사 중 가장 많은 사절의 왕래가 있었던 시기이고 탐라사절의 일본 파견뿐만 아니라, 일본의 사절도 탐라에 파견되어 활발한 교류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시기였다.

이 시기는 일본이 672년 진신(壬申)의 난을 통해 즉위한 天武天皇의 강력한 권력을 통해 고대 율령국가를 완성시켜 가는 시기이며, 국제적으로는 나당연합군에 의해 고구려가 멸망하고 이후 나당전쟁으로 이어지는 혼란기였다.

671년 12월 天智天皇이 서거하자 황위계승을 둘러싸고 황태자인 오토모 황자(大友皇子)와 天智天皇의 동생인 오아마황자(大海人皇子) 사이에 반목이 일어났다. 672년 요시노(吉野)에서 군사를 일으킨 오아마황자는 미노(美濃)에서 東國의 군사를 모아 오미(近江)를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다.<sup>59)</sup> 이것이 진신의 난이다. 진신의 난에서 승리한 오아마황자는 이듬해(673) 아스카키요 미하라궁(飛鳥淨御原宮)에서 天武天皇으로 즉위하였다.

53) 『日本書紀』 권29 天武天皇 6년(678) 8월 조. “戊午, 耽羅遣王子都羅朝貢.”

54) 『日本書紀』 권29 天武天皇 7년(679) 春정월 조. “己卯, 耽羅人向京.”

55) 이때의 高麗는 安勝의 報德國(671~683)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덕국의 대외교류에 대하여는 이재석, 「7세기 후반 報德國의 존재와 왜국」, 『일본역사연구』 31, 2010 참조.

56) 『日本書紀』 권29 天武天皇 8년(680) 9월 조. “庚子, 遣高麗使人, 遣耽羅使人等, 返之共拜朝廷.”

57) 『日本書紀』 권29 天武天皇 13년(685) 冬10월 조. “辛巳, …… 是日, 縣犬養連手織爲大使, 川原連加尼爲小使, 遣耽羅.”

58) 『日本書紀』 권29 天武天皇 14년(686) 8월 조. “癸巳, 遣耽羅使人等還之.”

59) 『日本書紀』 권28 天武天皇 원년(672) 夏5월 是月 조.

이때 다이카개신 이래의 주요 정치세력이 대부분 오토모황자를 지지하였으므로, 진신의 난 이후 이들 세력은 몰락하고, 天武天皇이 강력한 권력을 통하여 율령제를 더욱 정비하였다. 公地公民制를 강화하고, 天武 12년(684)에는 8色の 姓을 정하였으며, 황자에게 親王의 칭호를 사용하게 하였다. 또한 관위제를 확대하고<sup>60)</sup> 기요미하라령(淨御原令)의 제정(689)<sup>61)</sup>과 國史의 편찬을 시작하는 등 일본의 율령지배체제는 더욱 확고해 졌다.

이렇게 일본이 율령국가를 완성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는 혼란이 가중되었다. 668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고구려마저 멸망하고 당은 안동도호부를 통해 한반도를 기미지배체제 하에 편입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며 670년 초 劍牟岑을 중심으로 고구려부흥운동이 일어나 평양을 점령하고 신라와도 연계하자 당은 안동도호부를 요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고, 신라는 계속하여 고구려부흥운동을 지지하며 나당전쟁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天武朝는 친신라정책으로 대외정책을 전환하였다. 前朝인 天智條의 기본방침은 친백제정책이었다. 따라서 백제부흥운동에 일본은 원병을 파병하였고, 백촌강전투의 패배이후에도 일본 내의 백제망명인들을 우대하며 친백제정책을 고수하여 빈번히 일본에 파견되는 당의 사절들을 경계했다.

그러나 진신의 난을 거쳐 天武天皇이 즉위하면서 일본 내에서는 친백제정책을 고수하던 天智條의 지배세력은 일소되었고, 나당전쟁에 승리한 신라와의 우호관계를 강화하려는 天武朝의 대외정책이 친신라정책으로 전환되며 당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기 시작하였다.

나당연합군에 의해 고구려가 멸망하기 직전에 신라는 일본에 사절을 파견하였다.<sup>62)</sup> 이때부터 大寶 2년(702) 일본이 제8차 견당사를 당에 파견할 때까지<sup>63)</sup> 30여 년간 당과 일본의 교류는 중단되었고, 이에 天武朝는 신라와의 빈번한 사절교류를 통해 당에 파견되었던 견당사와 학문생(학문승)의 귀국에

60) 『日本書紀』 권29 天武天皇 13년(685) 冬10월 己卯朔 丙.

61) 青木和夫, 『淨御原令と古代官僚制』, 『古代學』 3-2, 1954.

62) 『日本書紀』 권27 天智天皇 7년(668) 秋9월 丙. “癸巳, 新羅遣沙喙級浪金東嚴等進調.”

63) 『續日本紀』 권2 文武天皇 大寶 2년(702) 6월 乙丑, 遣唐使等, 去年從筑紫而入海, 風浪暴險, 不得渡海. 至是乃發.”

주력하였다. 天武 13년(684) 12월에 대당유학생 하지노 스쿠네오히(土師宿禰甥), 시라루노 후비토호네(白猪史寶然)와 백촌강전투 때 당의 포로가 되었던 루츠카히노무라지 고비토(猪使連子首), 츠쿠시노미야케노무라지 도쿠코(筑紫三宅連得許) 등이 신라를 통해 귀국하였고,<sup>64)</sup> 持統天皇 원년(687)에도 신라사를 따라 학문승 지류(智隆)가 이르렀다.<sup>65)</sup> 持統天皇 3년(689)에 신라사는 학문승 마우스(明聰), 관치(觀智) 등을 데려왔다.<sup>66)</sup> 持統天皇 4년(690)에도 학문승 지소(智宗), 기도쿠(義德), 자관(淨願) 등과 軍丁 오후토모 베노하카마(大伴部博麻)가 신라송사를 따라 귀국하였다.<sup>67)</sup>

이러한 상황 하에서 탐라와 일본의 교류도 이전보다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다. 탐라의 사절이 일본에 도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도 탐라에 사절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⑨, ⑩-1, ⑩-2의 사료에 보이듯 일본도 탐라에 사절을 파견하며 양국 간의 교류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물론 사료⑤-2를 살펴보면 이때 天武天皇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일본에 파견된 탐라사절은 入京하지 못하고 귀국하고 있다. 진신의 난을 거쳐 즉위한 天武天皇은 축하사절 이외에는 송환한다는 명목으로 탐라사절을 츠쿠시(筑紫)에서 방환하고, 입경시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자세에 대해 가케이 도시오(筭敏生)는 당시 일본의 확고한 대외정책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sup>68)</sup> 이는 당시 한반도의 정세를 고려한 일본 측의 외교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탐라사의 입경 거부 기사 앞에 신라사의 입경은 허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일본은 탐라사를 입경시키지는 않았지만 탐라사에게 ‘大乙上’의 관위를 하사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그 나라의 佐平位’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

64) 『日本書紀』 권29 天武天皇 13년(685) 12월 조. “癸未, 大唐學生土師宿禰甥白猪史寶然, 及百濟役時沒大唐者猪使連子首筑紫三宅連得許, 傳新羅至. 則新羅遣使那末金物儒, 送甥等於筑紫.”

65) 『日本書紀』 권30 持統天皇 원년(687) 9월 조. “甲申, 新羅遣王子金霜林級浪金薩慕及級浪金仁述大舍蘇陽信等, 奏請國政, 且獻調賦. 學問僧智隆附而至焉.”

66) 『日本書紀』 권30 持統天皇 3년(689) 夏4월 조. “壬寅, 新羅遣級浪金道那等, 奉甲瀛真人天皇喪. 并上送學問僧明聰觀智等.”

67) 『日本書紀』 권30 持統天皇 4년(690) 9월 조. “丁酉, 大唐學問僧智宗義德淨願, 軍丁筑紫國上陽咩郡大伴部博麻, 從新羅送使大奈末金高訓等, 還至筑紫.”

68) 筭敏生, 『古代王權と律令國家』, 校倉書房, 2002, p.109.

히고 있다. 본래 佐平은 백제관위의 제1등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때의 좌평은 탐라지배층이 백제와의 교류를 시작하며 다분히 의례적 관위로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좌평의 관위에 비해 ‘大乙上’은 그 관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당시 일본 관위 19階 중 15位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日本書紀』 권27 天智 10년(671) 정월 是歲 조에 백제의 망명귀족에 대한 관위수여 기사가 보인다. 이 기사에 의하면 좌평이었던 余自信에게는 大錦下(26階<sup>69</sup>) 중 9位)가 수여되었고, 達率이었던 자에게는 大山下(19階 중 12位), 小山上(19階 중 13位), 小山下(19階 중 14位) 등이 수여되었다. 이를 감안한다면 이때 탐라사에게 수여된 관위는 달솔보다도 낮은 것이다. 탐라사에 대한 이러한 처우는 당시 일본이 인식하고 있던 동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한반도의 정세는 신라와 당이 결전을 앞둔 매우 긴박한 상황 하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일본도 빈번하게 신라에 사신을 보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이 의도적으로 탐라에 대한 차등적 의식을 드러낸 것은 아닐까? 676년 왕자 久麻伎에 이어(사료 ⑥-1) 탐라왕 姑如가(사료 ⑥-2) 연이어 일본에 와서 오랫동안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것을 보면(사료 ⑥-4) 탐라는 일본과의 대외교류를 공고히 하며 한반도의 정세변화에 대비하고자 하였고, 이에 비해 일본 역시 한반도의 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친신라정책 하에서 탐라에 대한 대응을 조절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친신라정책으로 인해 당과 소원해진 일본은 신라와의 교류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국제관계를 다양하게 하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이에 탐라와의 교섭은 일본의 동아시아 국제교류에 있어 중요성을 더해 갔을 것이다. 그러나 탐라와의 교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자 하였던 일본은 탐라와의 물자교역은 물론 한반도와 대륙의 정보수집을 위해서도 있어서도 탐라는 매우 중요한 교류상대였을 것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신라·당과 계속해서 교류하고 있던 탐라는<sup>70)</sup> 당시 일본에게 우호

69) 649년 19階로 제정되었던 일본의 관위는 664년 이후 26階로 바뀌었다.

70) 『三國史記』 권6 新羅 文武王 19년(679) 2월 조. “發使略耽羅國”; 『三國史記』 권10 新羅 哀莊王 2년 冬10월 조. “耽羅國遣使朝貢”; 『韓愈文集』 권4 「送鄭尙書書」, “其海外雜國, 若耽浮羅流求毛人夷亶之州, 林邑扶南眞臘于陀利之屬, 東南際天地. 以萬數

관계를 유지해야 할 주요 대상인 동시에 최소한의 경계심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었을 것이다.

한편 天武朝에 이르면 더욱 더 완성되어 가는 일본 율령에 국가 간 외교 사절의 왕래 및 儀禮와 賜與에 관한 규정도 정비되었을 것이다. 외국사절에 대한 賓禮는 일반적으로 도착지 安置(大宰府, 國司) → 存問使의 파견(存問) → 領客使에 의한 京上(領客) → 나니와(難波)에서의 환영(迎船)과 나니와칸(難波館)에 安置 → 入京使의 郊勞(郊勞) → 조정에서 사절의 뜻 주상, 奉獻物 봉정 → 饗宴 → 賜與(授位, 賜祿 등) → 領郷客使에 인솔되어 出京 및 귀국의 순으로 진행되었다.<sup>71)</sup> 탐라와 일본 간의 교류는 점차 의례와 형식적인 면에서도 율령제의 정비에 맞추어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료 ⑥을 통해 보면 일본의 츠쿠시(筑紫)에 도착한 탐라사가 이후 나니와(難波)에 이르렀다가 배 1척을 賜與받은 것은 賓禮의 규정에 의해 사절의 예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료의 내용이 간략히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탐라사 역시 외국사절의 빈례에 따른 절차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탐라사의 일본파견뿐만 아니라 일본 역시 탐라에 사절을 파견하며(사료 ⑨, ⑩-1, ⑩-2) 양국의 대외교섭은 더욱 빈번해 지고 있다. 안동도호부가 요동으로 이동한 이후 한반도의 정세가 조금씩 안정되면서 일본은 내부적으로도 일본 열도와 주변의 섬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소위 ‘南島(즉, 琉球列島)使’를 파견하여 推古·舒明期 이후 단절되었던 南島인의 조공 촉진과 판도확대를 통한 南島路의 확보를 목표로 한 것이다.<sup>72)</sup> 남도로의 확보를 통해 이후 건당사파견의 루트를 역시 보다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南島와의 관계개선과 그 연장선상에서 탐라와의 보다 긴밀한 교류를 통해 일본의 남도와 탐라를 연결하여 탐라와의 지속적 교섭을 확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빈번히 이루어지던 탐라와 일본의 교섭은 天武天皇 사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686년 9월 天武天皇이 사망하자<sup>73)</sup> 天武天皇의 황후가 즉위하여

或時候風潮朝貢, 蠻胡賈人舶交海中, …… , 外國之貨日至, …….”

71) 森公章, 『古代難波における外交儀禮とその變遷』, 田中健夫編, 『前近代の日本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1995.

72) 山里純一, 『南島覓國使の派遣と南島人の來朝』, 『古代日本と南島の交流』, 吉川弘文館, 2009.

持統天皇이 되었다.<sup>74)</sup> 持統天皇은 天武天皇의 율령지배체제 확립정책을 계승하였고 대외정책 역시 그대로 계승하여 탐라와의 교섭도 계속되었다. 즉 『日本書紀』 권30 持統天皇 조에 기술된 양국의 교섭기사를 살펴보면

①-1 持統天皇 2년(688) 8월 조

辛亥 耽羅의 왕이 佐平 加羅를 보내어 방물을 바쳤다.<sup>75)</sup>

①-2 同 9월 조

戊寅 耽羅의 佐平 加羅 등에게 츠쿠시칸(筑紫館)에서 잔치를 베풀고 물건을 각각 차등 있게 주었다.<sup>76)</sup>

② 同 7년(693) 11월 조

壬辰 耽羅의 王子와 佐平 등에게 (물건을) 주었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sup>77)</sup>

라고 하여 天武朝와 다름없는 교섭상황을 보이고 있다.

사료 ②의 기록이 『日本書紀』에 기록된 탐라와 일본의 마지막 교섭기사이다. 이후 탐라와 일본의 교섭기사는 『續日本紀』에 3건의 기록만이 보인다.<sup>78)</sup> 8세기까지 이어지고 있던 탐라와 일본의 교섭기사는 이후 일본의 사서에서 자취를 감추지만, 일본의 기록에 탐라는 ‘耽羅鳴’라는 이름으로 10세기 이후까지 이어지고 있다.

73) 『日本書紀』 권29 天武天皇 朱鳥원년(686) 9월 조. “丙午, 天皇病遂不差, 崩于正宮.”

74) 『日本書紀』 권30 朱鳥원년(686) 9월 조. “丙午, 天淳中原瀛真人天皇崩. 皇后臨朝稱制.”

75) 『日本書紀』 권30 持統天皇 2년(688) 8월 조. “辛亥, 耽羅王遣佐平加羅, 來獻方物.”

76) 『日本書紀』 권30 持統天皇 2년(688) 9월 조. “戊寅, 饗耽羅佐平加羅等於筑紫館. 賜物各有差.”

77) 『日本書紀』 권30 持統天皇 7년(693) 11월 조. “壬辰, 賜耽羅王子·佐平等, 各有差.”

78) 『續日本紀』 권13 聖武天皇 天平 12년(740) 11월 조. “……又以今月三日, 差軍曹海犬養五百依發遣, 令迎逆人. 廣嗣之從三田兄人等二十餘人申云, 廣嗣之船, 從知賀鳴發, 得東風往四箇日, 行見鳴. 船上人云, 是耽羅鳴也”; 『續日本紀』 권35 光仁天皇 寶龜 9년(778) 11월 조. “壬子, 遣唐第四船, 來泊薩摩國甌鳴郡. 其判官海上真人三狩等, 漂着耽羅鳴, 被鳴人略留”; 『續日本紀』 권35 光仁天皇 寶龜 10년(779) 5월 조. “……又海路艱險, 一二使人, 或漂沒海中, 或被掠耽羅.”

## V. 맺음말

이상 『日本書紀』에 기록된 7세기 후반기 탐라와 일본의 교섭 기사를 검토해 보았다. 백제 멸망 직후인 661년부터 시작된 탐라와 일본의 교섭은 백제의 멸망, 백제부흥운동, 고구려의 멸망, 나당전쟁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의 격변기에, 그리고 동시에 일본 내부의 다이카개신을 통한 율령국가 성립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7세기 후반이라는 동아시아의 격변기 속에서 탐라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반도·당과 끊임없는 교류를 이어가며 일본과의 교류에 주력하였다. 탐라사와 관련된 자료가 극히 부족한 상황에서 『日本書紀』에 남아 있는 탐라의 대일 교섭기사는 매우 단편적이고 소략하긴 하지만 고대의 탐라가 일본과 항상적인 교류를 이어갈 정도로 발전된 모습을 증명해 준다. 天智朝를 거쳐 天武·持統朝로 이어지며 탐라의 대일교섭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탐라사의 일본 파견뿐만 아니라 일본사도 탐라에 파견되면서 탐라와 일본의 교류는 더욱 빈번해졌다.

그러나 탐라와 일본의 교류관계는 『日本書紀』의 기록의 검토뿐만 아니라 동시기 일본의 南島 지역과의 교류와 연계해서 비교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탐라의 대일교섭의 시작이 탐라에 표류한 일본 사절의 귀국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 보면 일본의 해외진출 및 동아시아와의 해상교류에서 탐라 및 南島 지역의 중요성이나 탐라와 南島 지역의 교류 가능성을 확인해야 탐라의 대일교섭의 전모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연구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三國史記』, 『舊唐書』, 『新唐書』, 『唐會要』, 『冊府元龜』, 『資治通鑑』, 『韓愈文集』, 『日本書紀』, 『續日本紀』, 『善隣國寶記』

井上秀雄, 『古代東アジアの文化交流』, 溪水社, 1993.

筧敏生, 『古代王權と律令國家』, 校倉書房, 2002.

森公章, 『遣唐使の光芒』, 角川選書 468, 2010.

김은숙, 「백제부흥운동이후 天智朝의 국제관계」, 『일본학』 15, 1996.

이재석, 「7세기 후반 報德國의 존재와 왜국」, 『일본역사연구』 31, 2010.

정효운, 「天智朝의 대외정책에 대한 일고찰」, 『한국상고사학보』 14, 1993.

진영일, 「고대 탐라국의 대외관계」, 『탐라문화』 30호, 2007.

青木和夫, 「淨御原令と古代官僚制」, 『古代學』 3-2, 1954.

池内宏, 「百濟滅亡後の動亂及び唐羅日三國の關係」, 『滿鮮史研究』上 第2册, 吉川弘文館, 1960.

松田好弘, 「天智朝の外交について」, 『立命館文學』 415·416·417, 1980.

藤井茂利, 「日本書紀に見える耽羅王子名-‘久麻伎’ ‘久麻藝’의 二重表記の問題をめぐって」, 『國語國文薩摩路』 25, 1980.

森公章, 「古代耽羅の歴史と日本」, 『朝鮮學報』 108, 1984.

森公章, 「古代難波における外交儀禮とその變遷」, 田中健夫編, 『前近代の日本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1995.

森公章, 「古代耽羅と日本の交流」, 『月刊韓國文化』 18-6, 1996.

筧敏生, 「耽羅王權と日本」, 『續日本紀研究』 262, 1989.

西谷正, 「朝鮮式山城」, 『岩波講座 日本通史』 3, 岩波書店, 1994.

山里純一, 「南島覓國使の派遣と南島人の來朝」, 『古代日本と南島の交流』, 吉川弘文館, 2009.

## Abstract

## Tamra's bargaining with Japan -Focusing on the Exchange Record of "Nihonshoki"

Lee, You-Jin\*

The first foreign bargainings with Tamra Kingdom and Japan began in May, A. D. 661, after the fall of Baekje Kingdom, when Prince of Tamra Kingdom, Apagi, made a contribution to Japan. In A. D. 659, the 4th T'ang Dynasty dispatched by Japan to the party was the T'ang Dynasty, which recognized the Emperor of the party and carried out the duty of the diplomatic envoy. However, the party that was preparing for the Baekje Kingdom War, in conjunction with Silla Kingdom at that time, After Baekje Kingdom was conquered, he could get permission from your home country. In A. D. 661, he returned to Japan with prince of Tamra Kingdom's Apagi, etc. Since then, Tamra Kingdom has participated in the Baekje Kingdom revival movement as the Baekje Kingdom, but was defeated. The allied forces from the army for reconstructing Baekje Kingdom and Japanese army were completely destroyed by the allied forces from Silla Kingdom and T'ang Dynasty at the battles of Baekchongang in A. D. 663.

As part of the process of establishing self-help measures through active foreign bargainings, such as participating in ceremonies for the Chulisan and participating in the ceremonies of Taesan toward Heaven, Yingue Yu, a general from T'ang Dynasty, went back to Tang together with envoys with

---

\* 숭실대학교 초빙교수(Invited Professor)

Silla Kingdom, Baekje Kingdom, and Japan. In the morning, we conducted several bargainings with the envoys through tribute and Denzy dynasty. According to the Historical Document of Japan, Tamra Kingdom sent envoys almost thirty times. This is regarded as an attempt to seek new alliance with Japan instead of Baekje Kingdom.

Japan, which completed the ancient rulling kingdom through the Daika Reform, went through the Denmu and Jitou dynasties and shifted its foreign policy toward the peninsula from the pro-Baekje Kingdom policy of the previous morning to the apology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led to the fall of Goguryeo Kingdom, at the same time, Tamra Kingdom continued to engage in more active bargainings, and Tamra Kingdom's dispatch to Japan and the exchange of Japan with Tamra Kingdom in Japan continued.

Key Words : Tamra, Japan, Foreign bargaining, Baekje's revival movement,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교신 : 이유진 15513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270-1(가산빌딩) 4층  
(E-mail: yjlee002@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8. 04. 30

심사완료일: 2018. 05. 25

게재확정일: 2018. 06. 07